

'비키'가 프랑지스코 교황님과 경험을 전합 니다.

“교황님을 만남에서 저는 저
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
친밀함을 느꼈습니다”.

2025-4-22

저는 비키 교사입니다.

저는 텍사스에서 자랐습니다.

교황님의 이런 친밀함 덕분에 저도 그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.

제가 처음으로 '메이트'를 준 것과 두 번째로 준 것 사이에는 3개월의 간격이 있었습니다.

그가 두 번째로 저를 보았을 때,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

다시 여기 왔어?"

그래서 그는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. 제가 이전에 만난 건 아마 22초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.

이런 만남에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함을 느꼈습니다.

제 친구의 생일이고 제가 그에게 말하면, 그는 그녀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거나 생일 선물로 뮤주를 줍니다.

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, 그는 그들에게도 사탕을 주는데, 그들은

"성스러운 사탕"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합니다.

제 친구가 그에게 그녀의 오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, 그는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. 그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묻고, 제가 잘 지내는지 물습니다...

그는 오늘 메이트가 맛있냐고, 너무 차갑거나 너무 더운지에 대해 놀렸습니다.

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. 말 그대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.
